

일 주 문

청소년교화연합회 위문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4월 17일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400여 장병들에게 다과를 보시했다.

법주사 능인교육관 개원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3월
10일 경내에 능인교육관을 개원하고
팸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다. (043)543-
3615

제8회 마곡사 신록축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5월
14~15일 마곡사 대광보전 앞 무대에서
제8회 마곡사 신록축제를 개최한다.

해인사 1029재 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5월 9
일 해인사 경내에서 제4차 1029재 제
14차 법회에 임재한다.

제6회 화엄예술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5월 10
일 화엄사 경내에서 제6회 글·그림·악
치 화엄예술제를 개최한다. (061)783-
7600

길상사 초파일 음악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은 5월
10일 김창만 밴드를 초청해 초파일 음
악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통리원 총무부장 등 인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5월 1일자로 통리원 총
무부장에 탑승임당 주교 겸 서울교구청장 무외 정사
를 내정하는 등 통리원과 교육원 부·국장급 인사를 단
행했다.
◇진각종 △통리원 총무부장 무외 정사 △재무부장
겸 건설부장 수성 정사 △포교부장 상제 정사 △건설국
장 원해 정사 △교육원 교육부장 관천 정사

금강대 기획관리처장 등 인사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4월 26일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기획관리처장 겸 산학협력담당 최병학
▲교학지원처장 겸 학생생활연구소장 겸 인적자원개발
센터장 이운영
▲대외협력처장 겸 신문방송사주관 최홍석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장 겸 기획조정팀장 박찬기
▲대외협력처 대외교류팀장 겸 홍보팀장 박연석

범패, 불교의 '참맛'

경남 영남전통 범음·범패교육원 법 운 스님



“불교의 참맛은 범음·범패에 있습
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맛 알리는데
여생을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출세
가·종단·나라를 초월해 영남전통
범음·범패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
게 제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영남전통범음·범패교육원 강주
범운 스님(前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
원장, 나누우리 감사)이 영남불교 전
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나비춤,
바라춤) 알리기 위해 6월 18~24일 라
오스를 방문한다. 범운 스님은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이사장 월운)
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준공 불상점안
범회 범음·범패를 선보이게 된다.
“6월 라오스에 가서 점안의식에서

범패를 선보이기 위해 연습 중입니
다. 불교국가인 라오스는 경제·사회
·문화면에서 한국과는 많이 달랐고
취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
오스를 방문해 봉사활동은 물론 불
교문화교류를 통한 지원을 계획 중
입니다.”
나누우리 감사이자 이사로 있는 스
님은 최근 복지사업과 함께 인재양성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영남불교 전통의식인 범
음·범패·작법(나비춤, 바라춤) 등
의 교육에 진력하고 있는 범운 스님
은 한국에서도 출세가·종단을 초월
해 작법 전수에 힘써왔다. 범운 스님
은 여생을 부처님 찬탄의식인 범음·
범패를 통해 보다 널리 불법홍포에
힘쓸 뜻을 밝혔다.

“범음·범패는 고려시대 왕실의 보
호하례 국교적 용성으로 상당히 성행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 정치
이념으로 범패는 정치적으로 쇠퇴했
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 사
찰령과 더불어 각 분말사법이 제정되
자 불가의 범패와 작법이 금지되거나
의식의 일부분이 간소화 됐습니다. 최
근에는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추
다보니 제의식을 축소화 하면서 범음
범패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남·호남·경기를 중심으로 다양
한 범음·범패 중에서도 영남 전통의

것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해방이후 불교 권공의식이 점차 쇠
퇴했지만 범음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과 불어 전승돼 하고 있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최근에는
단순한 예술공연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범운 스님은 “범패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범음·범패를 배우는 데에는 공
부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의식, 의례적인 것
이 아니라 부처님 속에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리를
하고 음성과 작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 모두 수행입니다. 한 순간 사탕 마
음을 먹으면 모든 조화가 깨지기 때
문입니다.”

그동안 80여 명의 전수생들이 있었
지만 여법하게 마치고 이어가는 이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범운 스님은 “수
행자가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후계자
양성에는 욕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
라며 “범패 뿐 아니라 소리, 의식 스님
께 배운 태평소까지 힘닿는 데까지 전
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 안평
사에 위치한 영남전통범음·범패교
육원은 매주 목요일 1~5시 송주, 예
경, 권공, 시련, 괴물이음, 바라춤, 나비
춤, 사물 교육을 초·중·고급과정으
로 나눠 진행 중이다. (053)818-2546
이상연 기자·손병현 대구지사장

불교강좌 열어 여생 회향

고준환 교수, 본각선교원 개원



“제 인생의
후반부는 석
가모니의 가
르침을 배우
고 전하는 불
사자입니다.”
한국교수불
자연학회 초대회장이자 창립멤버였
던 고준환(70) 경기대 종신명예교수
가 본각선교원을 개원했다.
70세를 맞이한 고 교수는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이라
며 본각선교원의 개원 취지를 밝혔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멤버
이기도 한 고준환 교수는 “대학교 1
학년 때 청담 스님 법문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서 한 빛을 보게 됐다”며 “그 이후로
깨달음과 보살도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교수는 본각선교원 산하에
시각선원과 석가대학을 두고 5월부
터 다양한 불교강좌와 법회를 열 계
획이다.
시각선원은 <법화경> <금강경> <화
엄경> 등을 소의경전으로 매주 오전
10~11시 선법회를 진행하며 5월 1일
개원했다. 법회 참석희망자는 무료로

들 수 있다.
고 교수는 “본각선교원을 바탕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며 거사화와 전국거사
림을 형성할 계획이며 나아가 세계 불
자 연합회를 만들어 지구상에 굶어죽
거나,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며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인류 문화운동을 전개해
세계일화로서 하나의 평화세계를 구축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준환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일보사 기자로 10년간
근무, 경남대 교수를 거쳐 경기대 법과
대학 교수를 맡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장을 역임했다. 이아은 기자

종단발전 위해서는 승가교육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 '교육불사 후원의 밤' 성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
장 지승)가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불사 후원의 밤' 행
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을 비롯해
불국사주지 성타 스님, 은해사주지
돈관 스님,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 선

운사주지 범만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동국대 김희옥 총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재
불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승가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
라”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앞으
로의 승가교육은 능력과 양심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이 1억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한
것을 비롯해, 조계사 5000만원, 통도
사·선운사 각 3000만원, 수덕사
1000만원 등 기부금이 잇따랐다.

이은정 기자

제2회 원효학술상 수상자



제2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울산
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 서울대 대학
원 외래강사 명법 스님, 서울대 박사
과정 최성호 씨가 선정·수상했다.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
위원회는 4월 29일 서울 다보림당에
서 제2회 원효학술상 수상자 시상식
을 개최했다.
원효학술상은 진흥원이 실시하는
국내 철학관련 학술상 중 상금 규모
가 최고 수준의 상이다.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해 한국철학이
세계 철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주
제논문 '간화선 화두간법론(語頭揀
病論)과 화두의식의 의미'으로 교수
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상금 500만원
을 받았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강의중인 명법
스님은 저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을 통해 비전임부분 우수
상을 받는다. 상금은 400만원이다.

학생 부문 논문 동상에는 최성호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생이 논문
'담연의 수행론에서 돈·점 개념 응
례 분석'으로 선정돼 상금 200만원
을 받았다. 조동섭 기자

원효종 원효보살 열반 추모재 봉행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향운)
은 4월 27일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원효보살 열반 1325주기 추모재'
를 종단행사로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정 벽송 스님, 총무원장 향운 스님
등 원효종 종도 및 종단행 사무총장
홍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향운 스님은 봉행사를 통
해 “종단의 종조인 원효보살의 대중불
교 운동을 적극 이어가자”고 밝혔으며

종정 벽송 스
님은 법어를
통해 “대중
불교를 이끌
어 주신 원효
성사의 뜻을
이어 방일하
지 말고 항상
정진을 다하
자”고 당부
했다. (052)262-6857 노덕현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대구 053-566-1116 울산 052-260-1037
부산 051-441-0111 경남 055-932-5877 제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바른정법. 바른인연 III
아직도 말을 붙이고, 화도 붙이고 앉아 있습니까?
연제중 세상에 몸을 나누실 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육식 도둑)을 가시발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 아랍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담하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상에 경정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목욕 탕이다. 00신동도량이다, 00영험도량이다, 00알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동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 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담 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히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십시오.
자..... 그 때문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자랄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것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정회와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 앞에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 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무엇? (이 무엇인가?)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즘은 어느 게그프로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님, 보입니까?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인연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 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겠는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발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이루면서 주사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님이, 법님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담이 없다..... 앉아서 식, 담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주소: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대중일등